

추수감사절과 초장절

임락경 (목사, 강원 화천 시골교회)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와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너희는 매년 7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지니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키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할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레23:39-4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이르시되 너의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신들을 음란히 좃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요 할 것이라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좇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모세가 당일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신31:14-22)

명절에는 노래가 있어야 한다. 우선 즐거운 흥을 돋구기도 하지만 노래는 잊혀지지 않고 오래 기억난다. 정신대에 끌려갔던 노인이 어릴 적 아리랑 한 절로 고국과 고향 친척을 찾는 것 같이 절기마다 절기에 맞는 노래와 놀이가 있어야 한다. 그 뜻을 잊지 않기 위해서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했고.

우리 선조들은 추수감사절을 추석이라 이름해서 조상들의 영전에 제사했다. 우리 선조들은 신앙관이,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 감히 제사할 자격이 없고 조상신께만 제사 잘 드리면 조상신들이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는 것으로 알고 조상신들에게 제사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과 인간사이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조상들의 영을 그리스도로 알았던 것이다. 유대인들도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제사장들이 그리스도로 역할을 했었다. 그리스도는 와서 자기가 중보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제사 하도록 하고 물러섰다. 아무튼 우리 선조들은 처음 열매, 처음 곡식을 그냥 먹지 않았다. 배고픈 시절에 만약 그냥 먹으려면 먼저 익은 열매나 곡식을 따로 두어 제물로 썼고 만약 추석이 윤달이 끼어 늦게 오면 가족끼리 울기심리라 이름짓고 먼저 조상신께 제사드리고 먹는다. 떡해서 지들끼리만 먹지 않고 이웃끼리 나누어 먹는다. 이웃과 나누는 정도 있지만 우리는 울기

심리하고 햇곡식 먹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로 한 것이다.

우리 마을은 산신제를 먼저 지낸다. 추석 때까지 처음곡식을 기다리지를 못한다. 예부터 보리는 남쪽에서 익어 올라오고 벼는 북쪽에서 익어 내려간다. 매년 추석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하고 미리 마을끼리 곡식 거두어 산신제를 지낸다. 돼지잡고 떡하고 술 빚는데 제주(祭主)는 그 해 삼재가 들지 말아야 되고 한 달 동안 병 문안이나 초상집에 가서는 안 된다. 개고기를 먹거나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된다. 제주는 삼재가 드는 해가 돌기 때문에 자동으로 매년 할 수가 없다. 이장이라고 매년 제주가 될 수 없고 학력, 재산 따지지 않고 어떤 이든지 내세워 한 달 동안 정결하게 준비하고 음식 준비하면 된다. 부부가 마찬가지로 온가족이 다 참례해야 된다. 루터, 칼빈이 만인 제사장론 주장하고 종교개혁하기 전부터 만인 제사장 제도 있었고, 루터, 칼빈 태어나기 전부터 6.25가 일어나기 전, 미군이 오기 전부터 그래 왔었다. 제사지낸 장소는 큰 바위 밑이나 큰 나무 밑이면 된다. 큰바위 밑이나 큰 나무 밑은 제당으로 마을에서 사용해 왔다. 우리 마을에서는 산길로 약 3-4km 떨어진 큰 절벽 밑을 제당으로 써왔는데 6.25때 그쪽 마을이 옮겨진 후로 바로 마을 뒤 큰 참나무아래서 산신제 지내다가 그 나무를 자르게 되어 지금은 더 작은 나무 밑으로 옮겨졌다. 옛날 제 지냈던 그 바위를 지금도 제당이라 부른다.

아브라함은 유목민이다. 처음 첫 새끼 길러 그냥 먹을 수 없고 암컷은 번식용이라 잡을 수 없어서 수컷을 구어 제사하려다 보니 돌로 쌓고 구어야 되기에 가는 곳마다 돌 단 쌓고 먼저 하느님께 제사드렸다. 성전 따로 없고 가는 곳마다 돌 단 쌓는 곳이 제당이였다. 그러다가 정착하면서 성전지였고 레위인이 제사장 독점해 왔었다. 예수께서 보니 제당이나, 제사장이 잘못되어 아무 곳이라도 하나님 모신 곳이 성전이요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레위인이 태어나기 전 우리는 레위인이 필요 없었고 성소 옮겨 다녔다. 여기까지가 레위기가 필요 없는 신명기 3장이다.

올기십리는 가족과 이웃의 추수감사 축제요 산신제는 마을축제요 추석은 전국적인 축제다. 우선 3일동안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구약에도 있듯이 아무 일이나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양반들에게 주어진 계명이 아니다. 종들 일시키지 말라는 것이다. 양반이나 지배자들은 날마다 노는데 무슨 일을 하지마라 해라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각기 일을 하게되면 대동놀이나 마을 축제에 참석 할 수가 없다. 햇과일, 햇곡식 준비해서 조상께 감사 드리는 절기다. 주된 음식이 송편이다. 찹쌀가루로 여러 가지 속을 위장해서 먹도록 하는 것이다. 햇콩, 햇팥, 참깨, 밤, 꿀 등을 넣어 빚는다.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은 식구들이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넣지 말고 싫어하는 것도 넣어야 된다. 싫은 음식 먹어야 건강해진다. 만들 때 모양을 달리 해서 표시해서는 안 된다. 식구들이 좋아하는 음식만 넣어 만들어도 소용없다. 이웃끼리 바꾸어 먹게 되고 만약 이웃집 가서 송편 안 먹으면 결례고 먹다가 뱉으면 천벌 받는다고 교육해 왔다. 주된 음식인 송편만을 빚을 때 여러 가지 넣어 빚어야 식구들이 건강하다.

집에서도 제사 지내지만 산소에 가서도 지내야 된다. 추석 전에 산소에 잔디를 깎는 날 정해 금초하기도 하고 바빠서 못하면 추석날하고서 제사지내도 조상들께서도 먹고 살기 바빠 그랬을 것이라고 너그러이 이해하실 것 믿고 죄스러운 마음없이 인사 올린다. 이때는 가까운 조상만 찾는다. 윗 조상들은 시제(時祭)때 모여 제사드리기 때문에 시제까지 안가는 3-4대 조상 산소만 찾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일가가 큰집으로 모여야 한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살아도 1년에 두 번은 모여야 된다. 교통이 막혀도 모여야되고 날씨가 비가와도 모여야 된다. 그러나 염려 말아라 우리나라 기후는 비오는 추석은 거의 없다. 비는 조금 때 주로 오지 보름날 올 때는 없다. 초여드레 스무 사흘 날이 조금이고 그름 때도 비가 가끔 온다. 사월 초과일 날이나 칠월칠석날 비오지 않는 날 몇 번 있었는가?

차례상을 차릴 때만이라도 전통 과일을 찾아 차렸으면 한다.

과일 이름이 외국어로 된 과일은 안 된다. 바나나, 파인애플, 키위, 오렌지, 토마토 그리고 제철 아닌 음식도 차례상에 올라서는 안 된다. 조상 제사지내는 이야기이고 하느님께 제사 지낸 이들은 상관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추수감사절과 우리 추수감사절을 비교해 보자.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7월 10일에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레23:26-32)하는 처벌규정까지 헌법에 명시하고 몸을 괴롭게 하는 절기로 시작해서 추수감사절이 되면 7일 동안 초막에서 살아야 된다. 몸을 편안하게만 한다 해서 건강할 수는 없다. 수시로 괴롭히고 밖에서 잠을 자 주어야 했다. 그리고 아름다운 과실과 무성한 가지로 노래와 같이 7일 동안 축제를 즐겨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일로 지킨다. 햇과일 햇곡식 아무생각 없이 다 먹고 나서 눈발 내릴 때 감사예배 한번 드리면 끝난다. 뭐 특별한 축제도 음식도 별로 없다. 헤어져 있는 사람 모임도 없고 무슨 역사성이 깃든 것도 아니다. 가족끼리 이웃끼리 마을 축제도 아니고 교인들끼리 모여 감사예배 드린 것으로 끝난다. 바람직한 추수감사절은 전통 명절인 추석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결합시키는 것이다. 산신제나 추수감사나 다 필요 없으나 이웃끼리 마을끼리 전 국민이 같이 감사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미국에서 옥수수 추수해서 처음 바치는 11월 둘째 주에 맞추느냐 아니면 미국식 기독교가 양보해서 우리 명절인 추석을 받아들여 감사절을 보내느냐 하는 선택은 교단마다 결정할 일이겠으나 감사헌금 많이 모으려면 11월에 드리는 것이 좋겠다.

추석을 맞아 건강을 지키려면 체하는 것과 감기, 이 두 가지에 신경을 써야겠다. 주로 명절 음식 먹고 병나는 일이 많다. 체하는 것은 발효식품만 같이 먹으면 체하지 않는다. 그런데 추석음식은 발효식품이 없다. 햅쌀 밥에 송편 가지고는 발효식품이 아니니 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여기에 동동주 담아 같이 먹으면 체하지 않으려면 한국기독교에서 최악시하니

안되겠고, 동동주 담아 오래 놔두면 식초 되니, 식초 만들어 먹으면 괜찮다. 과일주 담가 먹으면 좋으려만 이것도 한국기독교에서는 불법이니 포도주만 담구어 먹고, 나머지 과일은 과일 효소라 이름짓고 효소가 잘못되어 알콜 성분이 많아졌다고 하면서 마시면 괜찮다. 만약 체했을 때는 빨리 물 마시고 배 주무르면 된다. 누여놓고 배만져 제일 아픈 곳 찾아 힘껏 쓸어내리면 고쳐진다. 등을 만져 제일 아픈 곳을 두드려 주어도 되고 급할 때 손끝을 바늘로 따주기도 한다. 혈을 아는 사람은 합곡혈에 침을 놓아도 되지만 잘못되면 의료행위에 걸린다.

감기는 여러 가지 증세에서 오지만 제철 아닌 과일 먹으면 걸린다. 참외, 수박, 토마토는 여름과일이다. 복중에 몸을 차도록 해서 더위먹지말고 건강지키라고 여름에 나온 과일인데 값비싸게 팔려고 늦게까지 농사해서 파는데 차례상 음식은 아니다. 차례상이나 성묘 때 수박, 참외, 토마토 많이 보았다. 특히 햇과일이 아니다. 햇과일 가지고 조상제사 안 지낸 죄로 감기라는 벌을 준다. 바나나도 열대지방과일이다. 이것도 차례상에서 보았다. 조상신이 노하신다.

감, 사과, 배, 밤, 대추는 가을 음식으로 어느 때 먹어도 좋다. 포도도 봐준다. 복숭아는 귀신 쫓는다고 제상에도 놓지 않는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병이 나면 귀신이 병나게 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병과 귀신과 혼동하고 사는 이들도 있다. 과일중에 해독제로써 복숭아를 들 수 있다. 특히 담배 즐기는 이들에게 좋다. 최근에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다. 모 대학 모 교수가 담배를 하루에 세 갑을 피우기에 옆에서 너무 피지 않느냐고 하니 걱정말라고 하면서 학교 실험실로 데리고 가서 담배진을 구렁이에게 먹이니 금방 쓰러져 죽어가는데 복숭아즙을 내서 먹이니 바로 살아나더라고 한다. 복숭아 먹으면 금방 병이 고쳐지니 귀신 도망간 줄 알고 복숭아를 귀신 쫓는 과일로 알고 집안에는 심지 말아라 하고 잡귀 쫓으려면 동쪽으로 뺀 복숭아 가지 꺾어다 푸닥거리 하면 잔병 고쳐지니 귀신 나간 줄 알고 무당이 이용해 왔다.

집안에 복숭아 나무를 심지 말라는 이야기는 맞다. 복숭아 털이 몸에 묻으면 피부병을 일으킬 수도 있고 알레르기 환자는 몸이 가려울 수도 있으니 멀리 심어놓고 과일만 따다가 씻어서 피부 건강한 사람이 껍질 벗겨 주면 좋겠다. 젖상까지 올라오면 제사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약한 사람은 눈병이나 피부병 걸릴 수도 있어 이것 역시 제사 잘못 지내서 조상신이 노하셔서 병을 얻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 차례상에는 올리지 말고 먹을 때는 상관말고 먹어도 좋겠으나 농약 쳐서 생산한 복숭아는 역시 독을 먹으니 잘 판단해서 하시도록.....

여호와와 증인들은 복숭아를 에덴 동산의 과일이라 하고, 신선들도 갖고 놀아 천도(天桃)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과일 잘못 따먹으면 쫓겨나고 잘 골라 먹으면 신선된다.

정기구독료를 납부해 주십시오

독자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하시는 사역 위에 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탁드릴 말씀은 정기구독료 납부에 관한 일입니다. 정기구독 신청하신 지 1년이 지난 분들은 다시 구독료를 납부하셔야 계속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로용지를 보내드리오니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납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